



사람

아나운서 이상벽

## “남은 열정 불교에 회향”

이웃집 아저씨 같은 외모에 구수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온 국민을 울고 웃게 했던 국민MC 이상벽(63. 4년여의 긴 공백에도 녹슬지 않은 입담으로 부처님 이야기를 온 누리 화장세계로 장엄하기 위해 나섰다. 방송계를 떠나 사진작품 활동에만 몰두하던 그가 btn 불교TV '이상벽 이야기쇼 붓다야 붓다야'로 방송에 복귀했다.



요즘 “불교와 사진 생각만 한다”는 이상벽씨.

“처음 방송 제안을 받았을 당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죠. 방송을 그만둔 후로 최근에는 사진작품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불교방송 출연은 사진작업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뿐더러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더욱 맘에 들었습니다.”

### btn ‘붓다야 붓다야’ 진행

### 방송인 불자 ‘예불회’ 반장

방송 복귀 소식에 불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상벽씨의 열의도 대단하다. “부와 명예만을 위해 방송을 한다던 얼마든지 쉽게 방송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방송인으로, 불자로서 저의 마지막 에너지를 불교에 쏟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조병순 PD는 “이상벽씨가 프로그램 관계자 중 가장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녹화당일 날엔 PD와 작가들보다 훨씬 일찍 방송국에 나와 방송을 준비할 정도로 열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긴 공백을 깨고 돌아온 이상벽씨의 머릿속에는 온통 불교와 사진에 대한 생각뿐이다. 방송계를 떠나 사진 작품활동에만 몰두하던 그는 이미 국내와 해외에서 개인전을 열만큼 프로사진작가로 자리매김 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지방에 내려갈 때면 꼭 근처 가까운 사찰로 참배를 하고 옵니다. 삼배라도 하고 나와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상벽은 “7남매를 힘들게 키우면서도 열심히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불교를 믿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황해도 웅진 출신인 제가 학연도 지연도 없이 지금까지 순탄하게 방송을 하며 사랑 받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 가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쉬다가 불교TV 일을 하게 된 것도 저에게는 복이죠.”

이상벽은 10년 동안 방송관계자 불자모임인 ‘예불회’ 반장을 맡으며 방송계에서도 불심을 키워 나갔다. 예불회는 서울 지상사에서 매달 정기 법회를 봉행하며 조용한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이제는 카메라 렌즈로 바라본 부처님 세계를 사진에 담아 작은 전시회라도 열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이상벽씨, 부처님 법음이 섞인 입담으로 다시금 불자들을 결집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열린 보살만행으로 활구선 모색

## 움직이는선원 첫 안거 들어가... 도법 스님 등 지리산 팔백리 길 행선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사회 속에서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주(定住) 수행만이 있으니 현실감과 시대정신이 떨어지고 불교적 지향점을 잃게 됐다.”

조계종 2200여 수좌들이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석 달 동안 화두(話頭) 하나로 치열한 정진(精進)에 들어가는 ‘동안거’ (冬安居). 12월 1일 동안거 입제를 기해 좌선의 형식을 떨치고, 보살만행(菩薩萬行)과 운수행각(雲水行脚)의 행선 정진을 펼치는 ‘움직이는 선원’이 첫 안거에 들어간다.

‘움직이는 선원’은 실상사와 화엄사 등 지리산 지역 사찰로 구성된 ‘지리산 성지와 불교연대’의 첫 사업으로 8월 14~18일 창립을 기해 무비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남원 실상사에서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아담법석’을 개최한 바 있다.

동안거 기간에 맞춰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진행되는 이번 안거에는 도법 스님(인도 라망공통체 상임대표, 움직이는선원 열종)을 비롯해 실상사 화림원 대종 스님 10여명이 방부를 들었다.

‘움직이는 선원’의 남자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침묵 속에 지리산 산길을 따라 하루 약 15km씩 800리를 걸으며 수행한다. 수행방법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되, 각자 수행법이 있는 경우 자율로 진행된다. 행선이 끝난 저녁에는 대화와 난상토론으로 수행을 진단한다.

산문 출입을 끊는 ‘안거’의 개념을 뒤집고, 간화선 수행방법을 근본부터 다시 보는 ‘움직이는 선원’의 이러한 안거방식은 충격을 주는 게 사실이다. 아직 전국선원수좌회의 방향목에 등재되지 않은 등 제도화의 과제가 있지만 ‘움직이는 선원’의 새로운 시도는 생생한 활구선(活口禪)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는 현재 외형적으로는 화려하나 내용적으로는 정체성 등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요즘 선방 스님들 중에서도 스리랑카나 미얀마 등에 다니며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대승불교는 초기불교를 토대로 자리이타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회적 개념이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움직이는 선원’의 안거는 이러한 대승불교의 혼란 속에 다시금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움직이는 선원’은 행선뿐만 아니라 지리산 일대의 각 사찰과 연계해 <구사론> 연찬 등 다양한 교육의 자리도 마련한다.

매주 1회 실상사에서 진행되는 <구사론> 연찬 수행을 비롯해 월 2회 화엄사, 쌍계사, 벽송사, 대원사 등 지리산의 주요사찰에서 60여 젊은 스님들이 모여 출가수행을 돌아보는 아담법석도 진행된다. 화엄사와 쌍계사가 기본교육, 실상사가 전문교육, 벽송사가 선행교육 및 실참을 맡아 지리산 일대가 하나의 총림(叢林)을 이룬다.

도법 스님은 “머리로 하는 수행에서 벗어난 전신 수행은 안정되고 조용한 공간에 안주하는 정주 수행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새로운 수행과 문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움직이는 선원’의 화두는 새 수행풍토와 대중불교운동의 미래, 그 근원을 민중 성지인 지리산에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움직이는 선원’은 지리산 전체를 하나의 도량으로 보아 ‘지리산 총림(叢林)’ ‘지리산 특구’를 만드는 의미도 있다”는 스님은 “지리산 사람들의 연계를 ‘지리산 성지와 불교연대’의 밑거름이 돼 무분별한

지리산 개발을 막고 불교적 사회대안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며 사부대중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김교각 스님 1300년만의 귀향** 지장보살의 화현으로 추앙받은 김교각 스님이 1300년 만에 귀향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 봉안됐다. 동국대는 11월 20일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100주년기념관 준공 및 김교각 지장왕보살상 봉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정현 스님, 상임이사장 성관 스님, 정호 스님을 비롯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백상승 경주시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글 조동섭 기자 · 사진 박재원 기자

## 개성 영통사서 대각국사 다례재 천태종·조불련 합동 봉행... 해빙모드 조성

천태종(총무원장 정산)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은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개성 영통사(靈通寺)에서 대각국사 의천(義天 · 1055~1101) 스님 열반 908주기 합동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는 11월 10일 서해교전 이후 열린 첫 종교교류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례재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무원 스님, 사회부장 경천 스님 등 남측 13명, 북측에서는 조불련 정서정 서기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남북 공동 발원론 등이 채택됐다.

한편, 고려 문종의 네 번째 왕자로 11세 때 출가한 의천 스님은 중국 송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귀국해 영통사에 주석하며 천태종을 개창했다. 고려 현종 18년(1027년) 개성 오관산에 세워진 영통사는 16세기 화재로 소실됐으나, 천태종과 북측 조선경제협력위원회가 2002년부터 3년 간 복원불사를 진행해 중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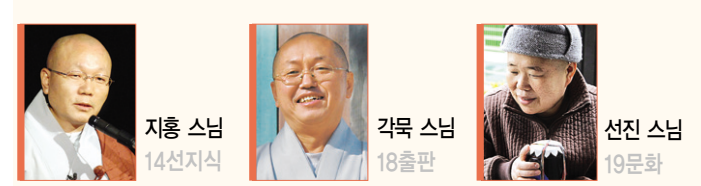
천태종과 조불련은 2007년 11월 개성 영통사에서 분단 후 처음으로 대각국사 열반 추모 합동 다례재를 봉행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 KCRP 한·중 종교지도자 교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최근데)는 11월 19~21일 ‘한·중 종교지도자 교류회’를 열고 중국종교인평화회의(CCRP, 대표단장 부선위 대표단을 초대했다. 이은정 기자

CCRCP는 중국의 5대 교단(불교, 도교, 이슬람교, 가톨릭, 개신교) 대표자 20명과 함께 한국의 7대 교단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 금주의 Hot.....



지홍 스님 14선지식, 각국 스님 18출판, 선진 스님 19문화

법구경  
저주의 말은  
그대에게 되돌아오고,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온다.

현대불교 @ 장미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031)792-6288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주판  
운주사

기초선(유년) 삼시수레와 평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011-336-4665  
대안불교조계종  
전년도골소속인  
용문사

얼레미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기  
생할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불자들의 소중한 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홍보하는  
밑거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ARS 포교후원  
0 60 - 700 - 10 8 0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려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C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질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촉접등  
중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